vol.49

MVP선교회 2017/06/10 SUMMER

벤처선교

MISSION VENTURE PARTNERS

그들로 선교하게 하라

천년의 준비, 페르시아 시인들 / 무슬림 선교 돌파를 위한 전략 / 거룩한 땅 /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생존에서 삶 속으로 / 눈망울에 비친 소망의 이유 / 함께, 베트남!

Contents

여는 글

그들로 선교하게 하라 | 장선우 03

현장 이야기

천년의 준비, 페르시아 시인들 | 이갈렙 04

무슬림 선교 돌파를 위한 전략 | 탁요셉 08

거룩한 땅 | 김소니아 13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 신여호수아 16

생존에서 삶 속으로 | 이 한 20

눈망울에 비친 소망의 이유 | 허단비 23

훈련 이야기

함께, 베트남! | 전상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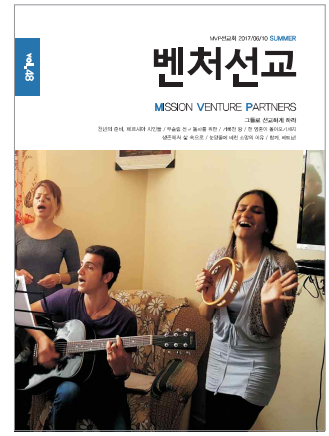
새소식 및 후원안내

MVP선교회 새소식 28

선교사 동향 및 후원자 30

MVP선교회 후원계좌 31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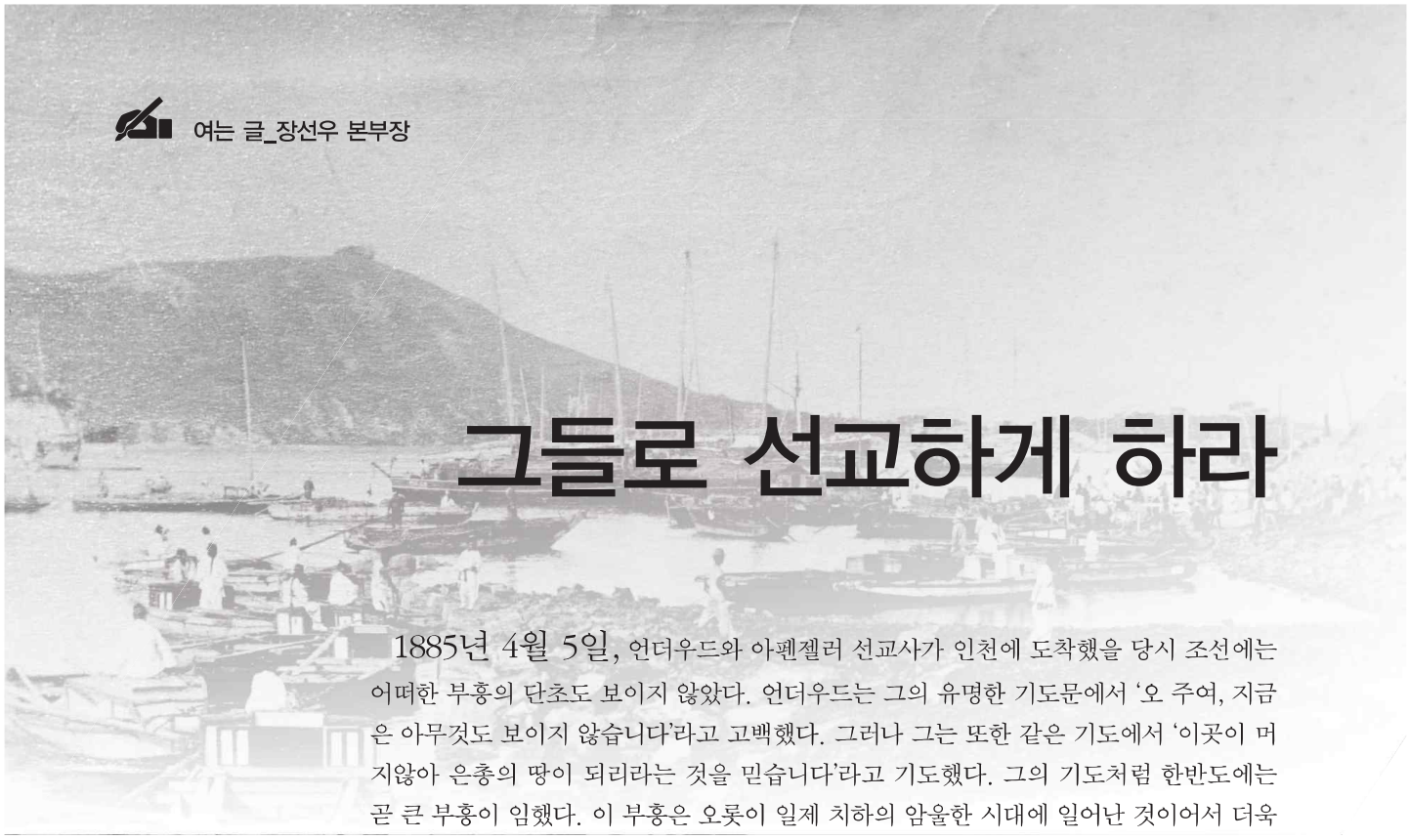


터키 중북부의 Y도시에 있는
이란난민교회의
열정적인 예배시간입니다.
이 도시의 이란난민은 20~30여명에
불과한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기독교신자이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Y시에 있는 수백 명의
아프간난민들과 수 천명의
아랍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 11:19-21
흩어진 자들을 통한 복의 확장)
사진제공: 페르시아1권역 사역자

이사장 신동우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정우길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후원이사 김만형 김민숙 박삼열
협동이사 김동해 이지호
본부장 장선우 | 멤버케어 이응복 | 훈련동원 총무 전상일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교회개척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윤 정 전해솔 최현희 | 협력연구원 강원국 김소윤 이영배
본부간사 권선주 문현심 최현미
협력간사 김효중 손인종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장선우 | 교정 김인애 최현희 | 편집 · 디자인 박동행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7년 6월 10일 | 발행부수 1400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꿈을 품은 이들이 모험, 도전,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한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



여는 글_장선우 본부장

그들로 선교하게 하라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 도착했을 당시 조선에는 어떠한 부흥의 단초도 보이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그의 유명한 기도문에서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같은 기도에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처럼 한반도에는 곧 큰 부흥이 임했다. 이 부흥은 오롯이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에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놀라웠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현재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도 중국 교회도 아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교회이다. 이 두 나라는 강한 이슬람권이면서 페르시아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알제리 역시 이슬람 인구가 97%가 넘는 강력한 이슬람권 국가이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흥이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터키에는 우리 MVP 현장 선교사가 주도하는 RZM(Raising Zinzendorf Moravian)센터가 있다. 윌리엄 캐리 이전에 개신교 선교를 주도했던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운동을 모델로 대다수의 세계(제3세계) 선교사를 일으키는 사역이다. 지난 1년만 돌아보더라도 6명의 이란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재 5개의 아프간 난민 교회와 1개의 시리아 난민교회를 섬기고 있다. 또한 향후에 이집트인 선교사를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 파송할 계획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선교지가 곧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 이를 증명한다.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로 선교하게 하는 것이다. 이란인 선교사들을 아프간인들에게로, 이집트인 선교사들을 시리아인들에게로 보내야 한다. 또한, 알제리 선교사를 일으켜 모로코로 보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는다.

천년의 준비, 페르시아 시인들

15세기 당시의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 '조미(Jami)'의 시에 얽혀 있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전갈이 길을 떠났다. 그런데 큰 강이 그를 가로 막았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성이고 있는데 이런 전갈의 모습을 보던 거북이가 전갈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전갈은 강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호소했다. 전갈을 불쌍히 여긴 거북이는 전갈을 등에 태워 강을 건네주기로 했다. 그런데 강을 건네주던 거북이는 자기 등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거북이는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돌아보았다. 세상에! 전갈이 꼬리 침으로 등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이 돌같이 딱딱하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벌써 독침에 맞아 죽었을 거였다.
그렇게 되면 전갈 자신도 물에 빠져 죽을텐데...

"야! 너 뭐하는 거야! 난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넌 날 죽이려고 하니!"

전갈이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 천성이 이런 걸 난들 어쩌니..."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는 시간에 택시를 타고 시골에 가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L선생님과 함께 찾아간 곳은 트랙터 기사 집이었다. T아저씨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간단히 담소를 나누었다. T아저씨는 차와 이미 차갑게 식은 논(빵)과 딱딱하게 굳은 꿀을 내왔다. 시집(詩集)은 동생이 갖고 있다고 한다. 형과 같이 트랙터 기사 일을 하는 동생 S형제가 대여섯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 T아저씨는 작년 겨울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간증을 하다가 타직의 시인들에 대해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무슬림으로 알고 있던 기라성 같은 유명 페르시아 시인들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타직어 실력자이신 L선생님도 '어쩌면 몇몇 페르시아 시인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품고 있었다. 그 얘기를 자주 들어왔던 나도 몇 년 전부터 선교 차원에서 페르시아 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조미'의 시 한편을 접했다. 이 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갈에 관한 우화를 담고 있는데, 나는 시 속에서 『인간의 전적타락』 교리를 쉽게 읽어낼 수 있었다. 전갈에 빗대어 읊은 이 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선행의 공덕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이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T아저씨는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들이 지은 시들과 성경의 구절들로 편집된 한 장의 전도지를 주었다. 거기에 실려 있는 시 한 수를 소개한다.

Садҳазорон тифл сар бурида шуд, 사드하조론 티플 사르 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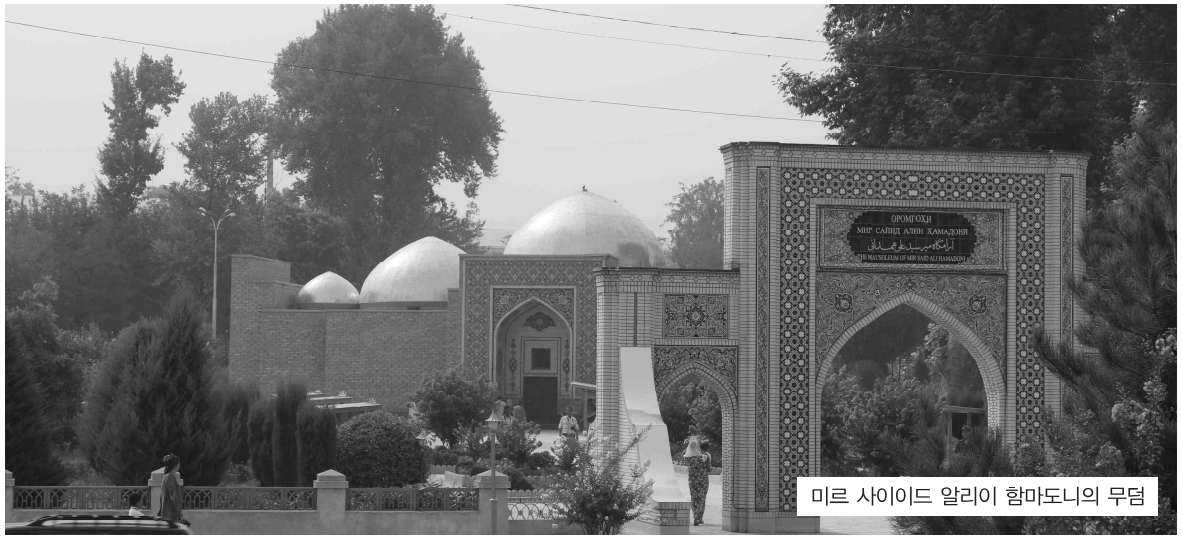
То калимуллоҳ соҳибдида шуд. 토 칼리물로흐 소힙디다

Садҳазорон халқ дар зуннор шуд, 사드하조론 할크 다르 준노르

То ки Исо маҳрами асрор шуд. 토키 이소 마흐람이 아스로르

이 시는 타직의 유명한 수피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는 '미르 사이이드 알리이 함마도니 Мир Сайид Алии Ҳамадонӣ'의 시이다. 알리이 함마도니는 이란 '하마단'에서 태어나 타지키스탄 '쿨롭'에 묻힌 14세기의 유명한 시인이다. L선생님과 함께 이 시의 내용을 번역해보았다.

수십만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후,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었네.
수십만의 사람들이 준노르에 매인 후,
예수의 비밀한 친구가 되었네.



미르 사이이드 알리이 함마도니의 무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수십만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유명한 사건이 나온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왕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데 알리이 함마도니가 자신의 시에 이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세 번째 줄의 '준노르'는 시인이 살았던 당시 이슬람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반드시 허리에 매야 하는 줄이다. 그러니까 준노르를 허리에 매게 되면 무슬림들은 쉽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고, 준노르를 맨 비무슬림들은 이슬람국가에서 차별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을 노래한 것이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비밀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핍박 아래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준노르를 매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한 것이다. 원문의 두 번째 줄에 '칼리물로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타직어 사전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는 뜻이고, 모세의 별명이기도 하다. 신명기는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신명기 34:10). 이 시의 타직어 원문 처음 두 줄을 직역해보면 '죽임을 당한 수십만의 아기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아기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두 줄 즉,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시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 이슬람국가에서 준노르를 허리에 매고 살면서 차별을 받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비밀을 나누는 친밀한 친구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시를 무슬림이 쓸 수 있었을까? 알리이 함마도니는 타지키스탄 화폐 중 10소모니 지폐에 그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타지키스탄이 국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학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쿨롭 시(市)에 있는 알리이 함마도니 무덤은 대통령이 그 돔에 금을 입혀주었고, 영험한 것으로 알려져서 무덤을 만지면서 기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수피 무슬림으로 알려져 많은 타직 무슬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타직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16-17세기에 인도 무굴제국 아지모보드에서 태어나 델리에서 죽은 '압둘코디르 베딜(Абдулқодир Бедил)'이 쓴 시 한 수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비록 지금의 인도 땅에서 살았지만 타직어로 시를 쓴 타직 시인이다.

Пур аз Исост ин ҷаҳон моломол, 푸르 아스 이소스트 인 자혼 몰로몰

Кай ғунҷад дар ҷаҳон қумоши Даҷҷол. 카이 군자드 다르 자혼 쿠모쉬 닷졸.

Шӯробаи талхӣ тирадил кай ғун, 슈로바이 탈키 티라딜 카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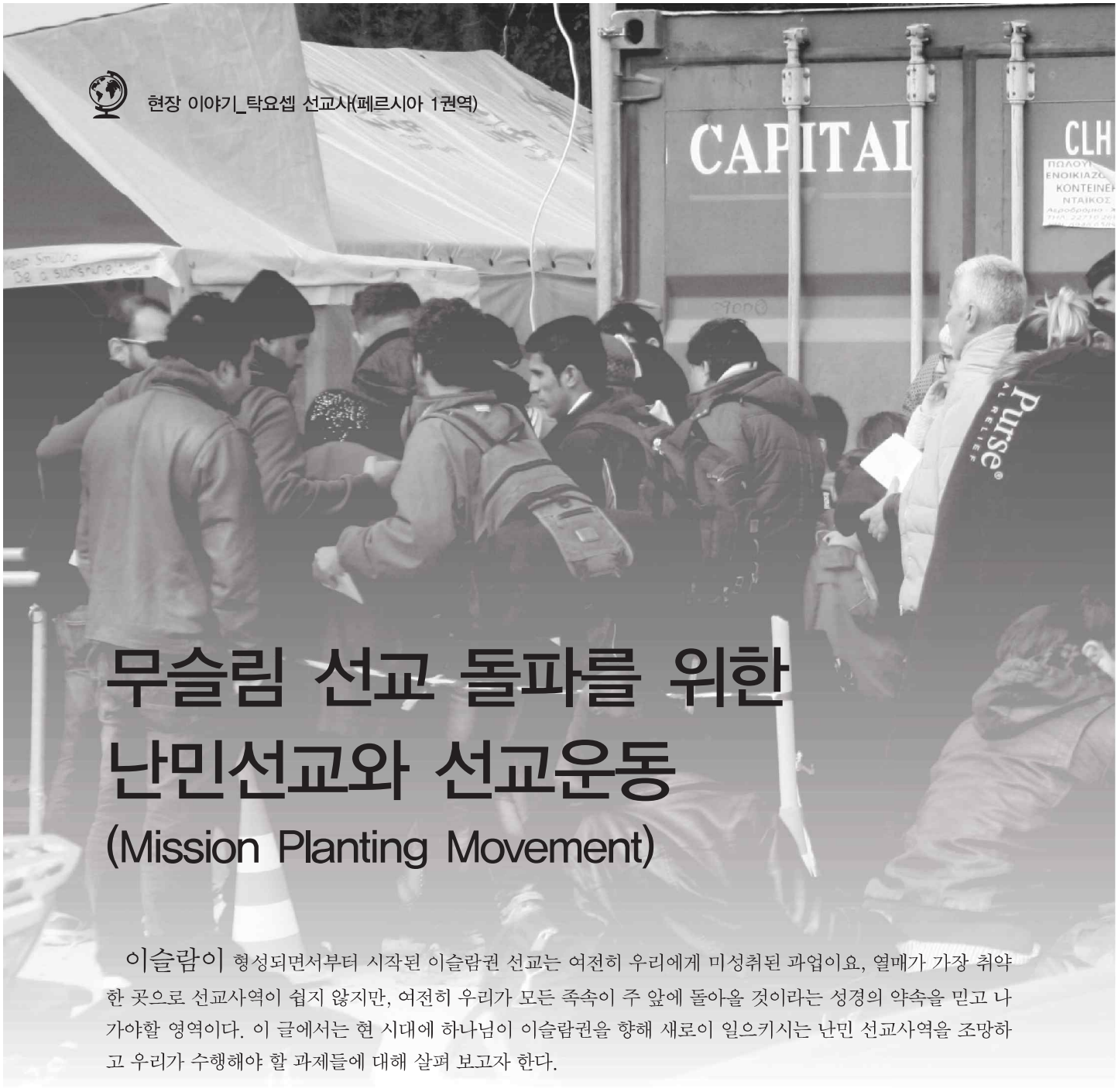
Чун машқи ҷаҳон пур аст аз оби зулол. 춘 마쉬키 자혼 푸르 아스트 아즈 오비 줄롤.

이 세상이 예수로 가득하다면,
언제 넘쳐나겠는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쓰디쓴 물이 어두운 마음에 언제 넘쳐나겠는가,
세상의 자루가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가 무슬림이라면 이런 시를 썼다는 자체가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에서 종교적 소수파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슬림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베딜의 다른 시들을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그가 무슬림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며칠 전에는 이러한 페르시아 시를 연구하여,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 기독교라는 결론을 가지고, 모스크바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한 분을 L 선생님과 함께 만났다. 그 분은 주요 페르시아 시인들의 시 중 99%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지어졌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 분의 석사 논문부터 연구해보기로 했다. L 선생님도 나도 가슴이 뛰고 있다. 너무 흥분되어서 어디 가서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들과 그들이 써낸 수많은 시들의 사상적 배경과, 그 시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신앙이 기독교라면 페르시아 언어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들에게 시인이란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이며 영적인 부모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인들이 무슬림인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타직인들은 스스로를 '태어나면서부터, 조상대대로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신적 뿌리로 여기던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신적 공황 상태로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적어도 그들의 사상적 뿌리가 기독교였다는 연구 결과가 견고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페르시아 권역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설사 이러한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위에 제시한 두 편의 시만 보더라도 페르시아의 유명 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분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적어도 나는 페르시아권 민족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통로를 확보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페르시아 인들을 이슬람권에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천년 전부터 친히 준비해오셨다고 믿는다. 페르시아 시인들과 그들의 작품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연구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무슬림 선교 돌파를 위한 난민선교와 선교운동 (Mission Planting Movement)

이슬람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이슬람권 선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성취된 과업이요, 열매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선교사역이 쉽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할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현 시대에 하나님이 이슬람권을 향해 새로이 일으키시는 난민 선교사역을 조망하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이슬람권의 새로운 파도: 난민선교

1) 페르시아권역에서의 새로운 기회 - 난민선교 모델

오늘 날의 페르시아권역(Persian Window)은 이슬람권의 다른 지역보다 난민이 더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페르시아 민족이면서도 중앙아시아권이었던 타지키스탄은 정치 ·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과 테러 때문에, 이란은 경제 · 종교적 문제로 주변국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이와 맞물려 각 국가들 안에서는 선교 상황이 악화되면서 선교적 과도기에 이르게 되고 자연히 현장에서 사역하는 국내외 선교사들도 급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선교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기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다.

(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구소련과의 오랜 전쟁 후에 다시 내전을 겪었다. 1996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탈레반에 의해 정부가 장악되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여 파키스탄과 이란,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하였다. ERCC(Emergency Response Coordination Center)의 2015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아프간 난민은 파키스탄에 대략 294만 명이 있고, 이란에도 대략 245만명이 있는데, 이 중 UN에 등록된 난민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2007년도 단기선교팀 피랍사태 이후 그곳에서 사역하던 100여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강제로 철수하게 되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축출되었던 탈레반 세력이 다시 아프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상당수 철수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아프간 국내에서의 선교는 사실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터키와 그리스 등에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아프간 난민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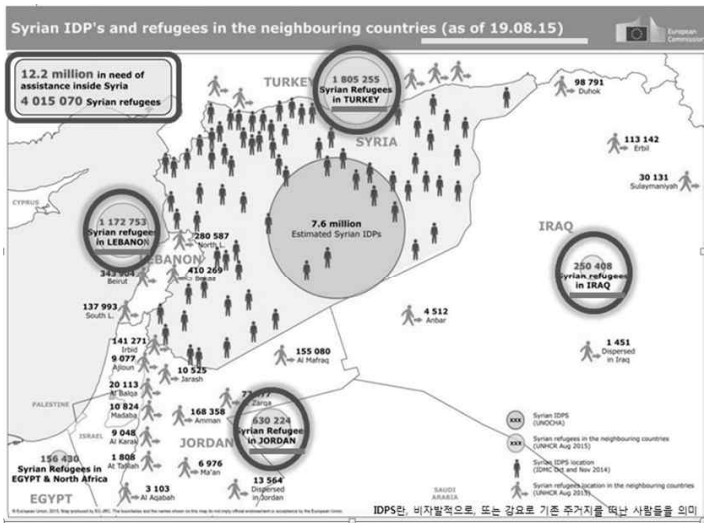
(2) 이란

정치·경제·종교적 문제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이란인들이 터키로 이동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은 이미 터키에서 이란인을 위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유입되는 이란인이 많아지자 이들을 위한 난민선교사역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놀라운 것은 현재 터키 내 40~50여 개 도시에 이란난민 가정교회가 100여개 정도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2) 아랍 권역에서 새로운 선교적 기회 - 난민선교 모델.

(1) 터키로 들어오고 있는 아랍권 난민들(시리아 난민들을 중심으로)

2015년 8월 UN자료를 보면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국내/외 시리아 난민은 1,200만 명에 이르며 특히 터키로 이동한 난민은 180만 명 가량이다. 하지만 10개월 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밖에 레바논에 110만 명, 요르단에 63만 명 등 터키 외 국가들에도 많은 난민이 이동하면서 아랍권역 곳곳에서 시리아 난민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랜 시간 이슬람에 묶여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민족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등을 겪으며 폭력과 힘으로 주도되는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들의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3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시리아 난민의 유입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이다.

오늘날 페르시아권(이란, 아프간)과 아랍권(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이 대거 터키로 이동한 것은 그 동안 막혀왔던 이슬람권 선교를 새롭게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무슬림 난민 선교전략(선교 개척 운동 : Mission Planting Movement)

1) 터키 내의 각 민족별 필요 및 전략적 사역

현재 터키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과 아프간 등에서 온 3백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머물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온 난민들의 내부적 필요를 보고 다양한 전략과 사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넓은 시야로 사역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는 터키 내 무슬림 난민들의 인구와 선교적 필요를 정리한 것이다.

터키 내 무슬림 난민 (인구)	터키 내 민족별 신자 수와 총체적 필요
이란 난민 (3만 명 이상.난민 외 유학생 및 기업인 수십만 명 추정)	▶ 이란인 신자: 5천~7천명, 이란가정교회: 100여 개 ▶ 필요사역 - 이란 난민들의 가정교회를 위한 지원 사역, 리더 훈련 - 헌신된 자원들을 터키 내 타민족 교회개척을 위한 선교사 자원으로 양성(Mission Planting:MP)
아프간 난민(15만 명 이상)	▶ 아프간인 신자: 약 200명, 아프간 가정교회: 5~10개 ▶ 복음 전도, 교회개척(CP), 지도자 양성, 구제, 교육
시리아 난민(약 300만 명)	▶ 시리아 교회: 3~5개 ▶ 복음 전도, 성경배포, 구제-교육-직업훈련
이라크 난민 (약 30만 명)	▶ 이라크인 신자: 난민의 5% 정도, 이라크 교회: 2~3개, ▶ 기독교인 모으기, 교회개척

2) 준비된 민족을 통한 현지인 중심의 무슬림 선교운동

피터 와그너 박사는 '전략개발'이라는 글에서 영적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강조하면서 집중해야 할 적합한 목표(The right purpose)를 가지고, 적합한 때(The right time)에 적합한 장소(The right place)에서 가장 적합하게 준비된 민족(The right people)이 참여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슬람권 선교의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이슬람권의 민족들이 있다.

(1) 페르시아 권역을 위한 준비된 민족

- 이란 기독교 신자들

이란은 이슬람 신정국가이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5년간 이슬람 권에서 영적으로 가장 부흥한 국가이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 가히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란 내에는 주로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50만~100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터키로 들어 오고 있는 이란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이제는 이란의 울타리를 벗어나, 터키에 난민으로 와서 타민족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카이로스)가 왔음을 본다.

터키로 들어 온 이란 난민 신자들은 준비된 가장 헌신적이고 적합한 민족(The right people)이다. 이들을 통한 이슬람권 선교의 전략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왜내하면 장차 터키 내의 난민사역이 전 이슬람권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아랍 권역을 위한 준비된 민족

- 이집트 기독교 신자들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집트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주변나라로 이집트인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다. 이는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신교신자들이 거의 100만 명에 이르고 콥틱 기독교인들이 800만 명 가까이 있는 이집트는 같은 아랍어권 선교를 위한 가장 준비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구약(사19:23~24)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과 애굽과 앗수르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고 한다. 이 말씀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위에 언급한 준비된 두 민족, 이란과 이집트의 신자들을 준비시켜 터키에서의 난민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이슬람권 선교의 핵심이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이 일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빠른 선교의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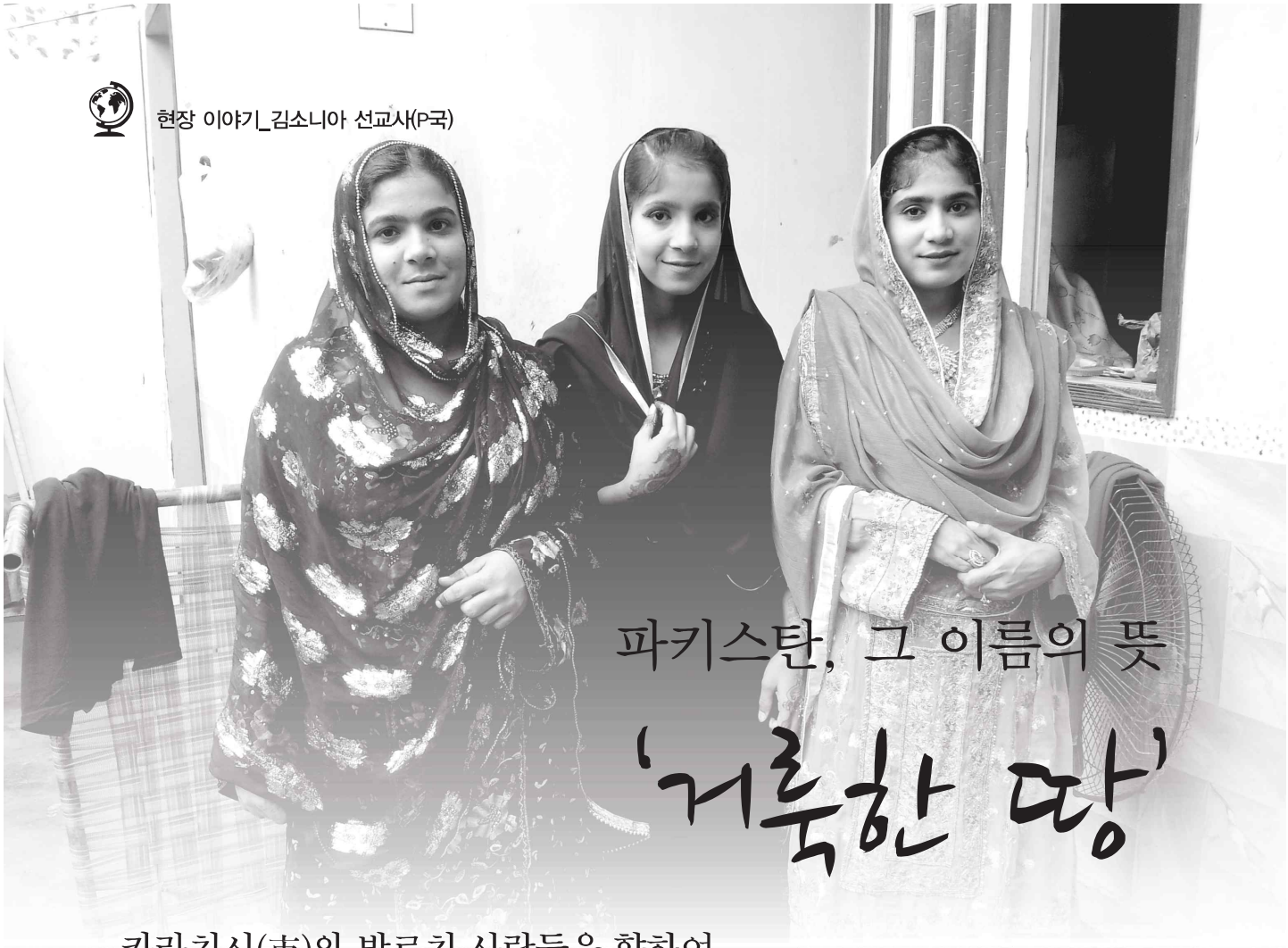
3. 무슬림 배경의 현지인 선교사 양성 체제로의 선교패러다임 전환 필요

첫째 준비된 이집트 기독교 선교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둘째, 과거 아랍권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아랍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전략적 재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집트에서 선교동원,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할 수 있는 파송기관(Sending Body)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터키에서는 이들 선교사를 받아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협력기관(Receiving Body)이 세워져야 한다. 현지인 선교사 양성운동 (Mission Planting Movement)은 결국 보내는 기관(Sending Body)과 받는 기관(Receiving Body)이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의무를 다하는 강한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가로막혔던 이슬람 선교가 난민사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추수의 시기를 맞이하여 창조적 선교방법이 필요하고, 이전까지 해오던 박자와는 다른 창의적 리듬(Rhythm)에 대한 도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권 선교사역이 겪고 있는 오랜 정체기는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과도기이다. 이 때에 우리도 민감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대와 소망으로 다음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현장 이야기_김소니아 선교사(P국)



파키스탄, 그 이름의 뜻 '거룩한 땅'

카라치시(市)와 발로치 사람들을 향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키스탄을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무리, 사회 전체가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보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인구 1억9천 만 명으로 인도네이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은 샤리아 법(이슬람 율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이슬람 공화국이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미전도종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특히 파키스탄 발로치 종족은 약 650만 명으로 규모가 큰 미전도종족이며 이들 중에 알려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으며, 오랫동안 고립된 환경 속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믿음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발로치 종족의 거주지 발로치스탄은 지역 내 분쟁과 테러, 납치 등 외국인들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으로, 선교사들의 정착과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불가피하게 도시에 기반을 둔 비거주 선교의 형태가 용이하다. 이런 개척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발로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육을 통해 소수의 리더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여, 이들을 통해 가정교회 형태의 셀 교회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돕는 관문도시 중심의 교회 개척사역이 효과적이다.

신드주(州)의 주도 카라치시(市)는 파키스탄의 옛 수도이자 약 2,3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국내 제1의 도시이다. 상업과 금융, 교통의 요충지로 파키스탄의 모든 종족이 모여 그룹을 형성해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관문도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외에도 도시 구조와 그 변화를 잘 살펴보면 다양한 선교적 접촉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 내 종족 집단에는 민족뿐만 아니라 계급, 계층 및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 및 사회집단이 있다. 이러한 종족 집단의 다양성은 사역의 방향성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에 선교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선교적 기회를 가늠하여 이를 발판으로 삼아 발로치 종족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 가고자 한다.

발로치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교방법이 아닌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문도시인 카라치와 발로치 종족에 대한 상세한 리서치(연구)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여 국내외 교회에 알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선교전략을 만들어 선교인적 자원을 동원하고자 한다. 현지 교회와의 상호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일을 위한 사역자가 너무 부족하다.

카라치에서 발로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리야리 지역은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 집단들의 싸움과 갈등이 주민들을 두렵게 하고 경제 활동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종족 외의 외부인들에 대해선 매우 폐쇄적이다. 자신들만의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발로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렵사리 관계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돌아와야 하기에 복음 전도는 전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이 주께 돌아오면 그 가정의 네트워크(친척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를 통하여 또 다른 가정을 주님께 인도한다. 정기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이 한 가정에 머물기보다 주변으로 계속 퍼져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지 교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미전도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동역하도록 이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복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16:9)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정적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열정으로 산 사람이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내게로 왔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나는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란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든 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부담감으로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지는가? 아니면 어찌 할 줄 모르는 답답함으로 힘들어 하는가?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을 안고 그대로 예전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다. 복음의 필요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필요에 민감하다. 지금도 나는 이 복음의 필요를 따라 달려가기를 소망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으로 인해 머지않아 파키스탄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고, 발로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복음을 심는다.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을 기대하며...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위대한 아들,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산 외에 친구가 없다'는 말에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쿠르드인의 중심지인 D도시에 정착하면서 정작 이곳에는 우거진 산이, 푸른 숲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한 캐나다인 친구가 우리 집이 지구 상에 어디쯤 있는지 알고 싶다고 구글 지도에서 찾더니, 사막에 집이 있는거냐고 물어봤던 일도 있었다. 황폐하고 메말라 늘 목이 마른 이곳의 갈증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의 영적 목마름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된다.

사역지에서 보낸 지난 8년 동안 기쁨과 감사가 많았지만, 때로는 좌절과 외로움과 인내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늘 무릎을 곧추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지상 명령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는 말씀이 나에게 도전과 가르침 되었기 때문이다. 현지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며 우리는 그들과 우정을 나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던 이유는, 즐거운 교제만으로 이들을 변화 시킬 수 없고, 어려움을 나누는 눈물만으로 이들을 감동시킬 수 없고,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변화 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신과 억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쿠르드 친구들의 마음을 비집고 다가가 복음을 전해도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이곳 쿠르드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몇 가지 원칙이 세워졌던 것 같다. 첫째는 그들과 하는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이고, 둘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지인 친구 집에 초대되었을 때에 되도록이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친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차 한잔 하자, 내일 사무실 들를게" 라는 말에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허탕을 친 적이 부지기수다. 특히 아내가 가장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는, 식사 초대를 해서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서야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약속한 일들과 내뱉은 말들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한 것은 적어도 나는 그들에게 배신 혹은 불신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내가 12주 동안 성경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성실하게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너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한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성실함이 쌓여서 그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 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게 된다.

최근 몇 년간 T국이 여러 가지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 여름 대통령에 반발한 군부가 일으킨 6시간의 쿠데타로 많은 군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경찰들이 희생 되었던 사건도 그 중 하나로, 그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킨 배후를 척결한다는 명목 하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쿠데타의 배후로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앙숙이었던 페트라 귤렌이 지목되면서 그와 관련된 각계 인사들이 대거 투옥되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쿠르드인 국회의원들과 쿠르드인들이 많이 사는 동남부 지역의 시장(市長)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무원 및 교사들이 페트라 귤렌과의 연계 혐의로 체포 혹은 해임되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한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로써 이슬람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T국의 의원내각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슬람의 부흥을 일으키려는 새로운 술탄이 세워졌다고 회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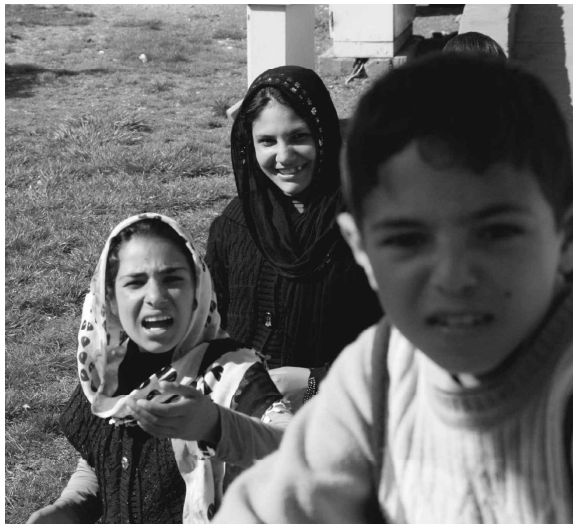
하지만 쿠데타와 계엄령이 있기 훨씬 전인 2015년 7월부터 우리가 사는 D도시는 혼란을 맞고 있었다. 게릴라군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쿠르드 지역인 T국의 동남부에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테러 소탕 작전을 수행했고, 작년 여름부터 1년이 넘도록 폭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그러자 D도시 중심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경찰들을 향한 보복성의 빈번한 폭탄 테러가 쿠르드 게릴라군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그 여파로 늘 무고하고 가난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 불과 십여분 떨어진 지역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장갑차가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풍경, 이것이 D도시의 현 상황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속되는 테러와 전쟁 속에서 쿠르드 친구들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다는 것이다. 한 친구는 이 전쟁 통에 우리 가족을 보면서 "너희 가족이 살기 좋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떠나고 싶어하는 D 도시에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쿠르드를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봄이 되면 우리 가족은 화분에 씨를 심는다. 호박, 상추, 또 어떤 한국 분이 주신 귀한 깻잎을 심고 기르며, 이 식물들의 한살이가 이곳에서의 우리 인생과 닮았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씨를 뿌리지만 이곳은 여름에 너무 건조하고 햇빛이 따가워 새싹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걸 알면서도 또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일을 몇 년째 하면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는 일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배우게 된다. 어느

날, 뿌리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던 나무의 씨앗이 날아들어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복음을 전했지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수 많은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들었던 것들에 아무 의구심을 갖지 않고 믿고 살아온 뼛속까지 이슬람인 친구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예전의 삶에서 전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에게 어떤 댓가를 바라는 친구들, 그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논쟁을 하는 친구들, 오감으로 체험을 하면 믿겠다는 친구들, 변질된 성경책은 읽지도 말라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주님, 과연 이들이 언제쯤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씨앗이 날아들어 자라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질서와 때가 차매 그 열매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 많던 거절의 시간들 속에서 M을 만날 수 있었던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여러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되어 가게 되었는데, 교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였을 때 이 친구는 지나가는 소리로 "그럼 나도 크리스챤이 되어볼까?"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은 내가 처음 겪었던 반응이었다. 다음에 다시 만나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일대일로 전하고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침내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였고, 그 이후로 1년간 꾸준히 예배와 일대일 새신자 과정에 참여하여 믿음을 키워 왔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 친구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소감을 이야기 하는 시간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이 세례는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받은 것이고, 나는 이 믿음을 당신들이 이곳에 계속 있든지 떠나게 되든지 간에 내 평생에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을 고백한 시 한 편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아들, 위대한 나의 하나님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고 환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위대한 아들, 위대한 나의 하나님
당신을 몰랐었고 사랑을 몰랐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는 내가 곡을 붙여 쿠르드어와 터키어로 예배 때 부르고 있다.

선교사로서 사역의 1기를 마치고 "주님, 내가 2기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쿠르드 친구들의 산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내심 사람들에게 내세울만한 좀 더 그럴 듯한 일을 시켜주시지, 왜 사역의 처음과 동일하게 그들의 산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것이 좀 더 쉬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산이 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일을 시키시는지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이 이 쿠르드인을 향한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저 그들의 산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저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말로 대답을 한다. 사랑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등등. 다 맞는 대답이다. 그리고 나는 이 대답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선교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 때, 나머지의 일들은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11:11)'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권면하고, 그저, 깨우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그 분의 길벗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긴 인내가 필요하지만 가장 값진 그 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 가정이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산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생존에서 삶 속으로

단기선교사 6개월 동안의 시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은 무엇을 제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생각하며 20대 청년 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갓 서른이 되어 혼자 선교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친구들, 가족, 사랑하는 연인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생각보다 훨씬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가려면 카자흐스탄에서 18시간을 경유해야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공항 풍경에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그나마 전에 탐방하러 가본적이 있어서 타지키스탄까지 가는 길이 낯설지는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드디어 타지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곳을 잡아먹으리라는 마음으로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 부푼 마음에 나에게 달려드는 택시기사님들이 귀여운 양들로 보이더군요. 그렇게 당찬 마음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집을 알아보고, 언어 공부와 타직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현지인 사랑하기

집을 구해 이사를 한 뒤, 첫날 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경찰 두 명이 와서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거주등록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여권 안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거주등록증을 처리하는 기관에 맡긴 상태라 복사본을 보였더니, 원본을 확인해야겠다고 합니다. 경찰차에 저를 태우고 어두운 곳으로 가더니 자기들끼리 제가 모르는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거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이사를 한 것은 불법이라며 4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자신들에게 200달러만 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앞에 200달러를 주었고, 그 뒤로도 경찰들에게 잡혀서 돈을 요구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말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시기였기에 점점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누구든 저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면 돈을 뜯으려고 하는 도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노크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이 잠겨있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무섭고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소련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타지키스탄은 모두에게 같은 물질과 같은 환경, 같은 누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대 갑자기 독립하게 되었고, 돈을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하는데, 아무리 벌고 모아도 그전에 누리던 물질과 환경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궁핍해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트집을 잡고, 일을 처리할 때 뒷돈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괴된 경제 상황에서 이들은 공허함과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이라 믿게 되었고, 그 마음을 심어준 것은 악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 위해 아버지가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열심히 공부했던 기독교 세계관, 타지키스탄 팀 안에서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 결론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3번이나 밤중에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가 왜 이 곳에 왔는지를 알기에 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뿐입니다.

언어 배우기

솔직히 학생 때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타직어를 공부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지어 공부는 2년 단기로 와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이슬람권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사역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언어수준을 높여 한 사람 한사람 만나면서 깊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후원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그래, 난 지금 언어에 집중해야 해. 날 위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라며 사명감에 불타는 한 편, "아… 왜 이렇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거야…"라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타직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국어를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법이 틀리고 엉망이어도 한국사람과 한국어로 말을 한다는 재미로 배우는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큰 부담은 더 독이 되는 것 같다고 느껴 저도 언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부방법이었습니다. 저만의 공부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어떻게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1년 가입해 놓고 고작 10번 밖에 공부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어공부 싸이트에서 가르쳐준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뇌가 기억하기 보다 혀가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라."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따지지 않고, 뜻만 생각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도, 청소하면서도,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말했습니다. 계속 말하고 외우고, 말하고 외웠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단어도 외웠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은 타직어로 '지미스톤'인데, 외울 때 "지미, 겨울이 뭐 이렇게 추워! 지미..지미..지미..지미스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시장에 가면 타직 드라마와 영화 CD를 많이 파는데 이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5개월이 지나자 생존언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일이 났습니다.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되고 보니, 언어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마음 깊은 이야기까지 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저에게는 지금이 언어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년간 목표를 잡고 열심히 저를 채찍질해가며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걸음

2년간의 발걸음 중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타지키스탄 곳곳을 돌아보고 그들의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 깊이 대화하고 복음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저 또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선교의 다음세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은 모두 40~50대이고, 저에게는 아직도 10년 20년의 뒤의 일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계획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한 것 같이, 그냥 지금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로서 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변화, 세계선교의 동향, 미디어 세계화, 인권문제, 경제, 정치, 질병 등등… 그냥 2년만 잘 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나 완벽히 준비하고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랬듯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은 무엇을 제일 사랑하시나?"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것입니다.

눈망울에 비친 소망의 이유

이집트와 터키를 다녀와서

2017년 1월 17일 새벽 12시 30분. 비행기는 약 30분 정도 출발이 지연되고서야 인천국제공항 위로 날아올랐다. 4년 반 전에 이란을 떠나오고는 처음가는 선교지 방문이었다.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하는 동안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다. 한국에 돌아와 정신없이 준비했던 선교보고, 여러 갈등과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맞는지 고민하고 또 걱정했던 순간들, 그 동안 만난 아이들. 한국에서의 4년 반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 시간을 보낸 뒤에도 여전히 이 부르심 안에 있음에 감사했다.

이번 여행은 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현지 생활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다. 초등교사로서 파견이 가능한 지역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이란은 다녀와 보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교사가 파견가기 어렵기에, 이번에는 이집트를 방문해서 현지 생활을 알아보고 싶었다. 아울러 터키를 방문하는 목적은 현장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사역에 필요한 아랍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마침 2016 선교한국을 통해 난민사역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그곳에서 이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혼자 떠나야 하는지 고민하던 차에 본부 사역을 하시는 현심간사님과 같이 떠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이집트, 터키가 IS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이었지만 부모님께서도 이번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몇 년 전에 이란을 다녀왔을 때는 재정적인 부분을 무척 걱정하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기에 너무 마음 편하게 떠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했다.

듣던 대로 이집트는 '공기가 탁하고,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서 무척 지저분하며, 질서가 없고, 소란스럽고 거친' 나라였다. 이란의 테헤란은 회색 도시였는데, 이집트의 카이로는 갈색 도시였다. 황토 빛이 도는 연한 흙색의 건물들이 즐비한 모습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정신없게 돌아다니고 차는 계속 경적을 울리며 소음을 만들어냈다. 뿌연 하늘의 모습과 여기저기에 아무렇지 않게 널려있는 유적들이 인상적이었다.

이집트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교제를 나눴다. 선교사님의 소개로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밝고 적극적이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의사소통을 하며 어울리다보니 이란에서의 시간이 많이 떠올랐다. '이란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립고 아쉬웠다.

이집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함께 기도회를 가졌던 시간이다. 기도회를 통해 나의 지난 시간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게 부르심이 있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의 복잡함,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왜 내가 한국에서 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수없이 고민하며 불안해했던 시간. 내 부르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이들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초초한 마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넘어서시는 분인데, 혹시나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조급한 마음.

복잡하게 고민했던 4년 반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순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졌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며 아이들을 위해 성실하고 즐겁게 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옆에 부르신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던가! 항상 현재에 잘 머물지 못했기에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며 조바심을 내면서 살았던 것이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상황도 부르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에 소홀하고서는 앞으로의 부르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집트의 일정을 정리하며 우리는 100kg 정도의 성경을 싸들고 터키로 향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터키 앙카라까지 직항으로 가면 금방일 텐데, 우리의 일정은 하루 동안 빙빙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피곤할까봐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중간에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주셔서 참 기뻤다.

터키 일정은 무척 빡빡해서 정신없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앙카라 주변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고, 아프간 교회를 방문했다. 눈 쌓인 앙카라 근교를 달리며 차 안에서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이란어 찬양을 연습했다. 난민들 중에는 신앙을 위해 난민이 된 분들도 많이 있었다. 4일 정도 까이스라는 아프간 그리스도인과 동행했는데, 그는 파슈툰족이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서 자랐다고 했다. 까이스는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험에 처해 고국을 떠난 21세의 청년이다. 선교사님과 까이스, 현심 간사님과 함께 4명이 팀을 이루어 이곳저곳의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까이스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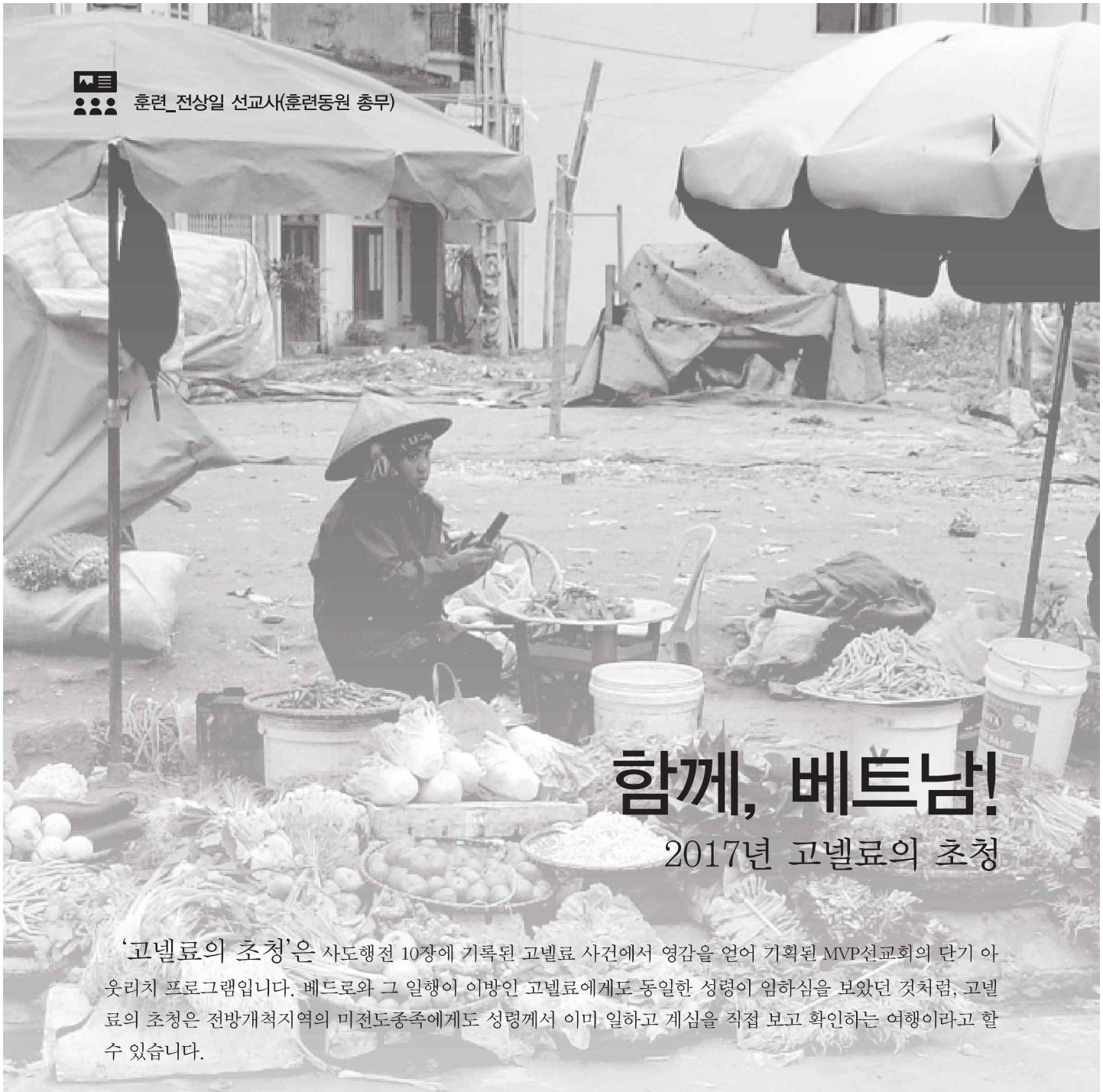
타는 믿음과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모습이 내게 많은 도전이 되었다.

터키에서 이란인 그리스도인들과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시간이 참 행복했다. 정작 이란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이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아프간 사람들은 이란에서 무시를 받으며 지내는 민족이었는데, 이 곳에서는 이란 사람과 아프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넓히셔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는, 우리가 무시하는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나도 이란에서 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 마음으로 무시하곤 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시선으로 살았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아프간 난민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이란 그리스도인들,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예전에 내가 이란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 형제 눈빛이 정말 반짝이더라. 이란 사람들의 초점 없는 퀭한 눈빛과는 참 달랐어. 눈빛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느꼈지. 만약 눈이 반짝거리는 이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지 조용히 물어봐."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과 기쁨이 묻어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빛이 없어 어두움 속에 놓여있는 많은 난민들에게 그 큰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고 싶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4:16)

훈련_전상일 선교사(훈련동원 총무)



함께, 베트남!

2017년 고넬료의 초청

'고넬료의 초청'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기획된 MVP선교회의 단기 아웃리치 프로그램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의 초청은 전방개척지역의 미전도종족에게도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지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세 명의 동료들(황재석, 박연의, 남수지)과 함께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주종족인 킨족(비엣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킨족의 복음화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킨족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MVP선교회 소속 선생님들을 만나 함께 사역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베트남과 킨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하노이에서는 현지 대학교와 우리 MVP선생님이 사역하는 어학원을 방문하여 베트남 청년들의 '오늘'을 볼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베트남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에서는 BAM(Business As Mission) 사역을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BAM사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일에 방문한 현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담임 목사님과 잠시 교제를 하면서, 한인교회가 베트남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일 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트남과 킨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된 분위기 속에 빠른 경제발전과 다양한 외국인들의 유입은,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킨족 청년들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킨족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울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질서 있게 이끄시는지를 나누면서, 선교사로 나오는 것이 단순한 열정만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삶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베트남에 있는 킨족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우리가 본 것은, 지역과 문화와 시대와 민족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역사였으며, 그 일에 겸손하게 드려지고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킨족의 동역자들, 그리고 장차 그 땅 가운데 왕성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고 올 수 있도록 여러 모습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와 킨족과 열방의 모든 민족의 사랑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선교지 NEWS

키르키즈스탄 - 비자 상황과 형태

키르키즈스탄은 요즘 비자를 전보다 잘 주는 편이고 비자 종류도 더 다양해졌다. 가장 저렴한 비자는 학생비자인데 비자비가 대폭 인하되었고, 1년 복수(멀티) 비자(60$)도 잘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비즈니스 · NGO · 여행사 대행 복수 비자는 노동증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한인 여행사에서 대행 받아 노동증을 받기도 한다. 비자비용은 600~800불선이다. 요즘 영주권 신청이 급증했는데 발급에는 아직 많은 비용이 많이 든다.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비즈니스맨이나 엔지오, 기관, 개인재산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다.

교수 비자도 있는데 국립대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 한국어 전공(인문학)이나 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하다. 타 대학들은 한국어전공,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교수자격이 가능하다.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노동증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된다.

종교법이 강화된 이후 소리 없이 종교성과 경찰들이 등록된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적발하여 벌금이나 추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로 많은 액수의 벌금을 요구한다. 사회분위기가 바뀌거나 뒤숭숭할 때 본보기로 한 두 사람을 추방하기도 한다.

선교회 하반기 훈련안내

타지키스탄 - 비자시스템 정비로 인한 혼란

타지키스탄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비자 문제이다. 올해 초부터 도입된 비자발급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비자 연장이 거절되기도 하고, 가족 중 일부의 비자가 안 나오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벤처팀은 가정 모임을 진행 중에 있고, 소식을 새롭게 전하는 일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다른 단체와 연합으로 엔지오 베이스를 세웠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타직어-한국어 사전 안드로이드 무료 앱을 출시하였고, 6월에는 IT 심포지엄을 현지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집트-시리아 난민 수단 통해 이집트로 유입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수단을 경유해서 이집트로 유입되고 있다. 이집트는 현재 시리아 난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단과 이집트의 국경을 넘기 위해서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현재 이집트에는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50만 명 이상이다. 이집트에 정착하는 시리아 난민들은 주택과 일자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흔과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벤처팀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1. SVM 훈련

1) 2기 단기 SVM

(1) 기간 : 2017년 8월 중 2박 3일

(2) 장소 : 가평 오륜빌리지

(3) 회비 : 1인당 15만원

2) 35기 SVM

(1) 기간 : 2017년 9월 2일~11월 11일 /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30분

(2) 장소 : MVP선교회 벤처홀, 꿈이있는교회 꿈터

(3) 회비 : 1인당 25만원

- 개강 2주전 선등록 시 23만원
- 대학생 할인 20만원

3) 훈련내용

- 선교란 무엇인가?
- 선교역사와 최근 선교동향
- 벤처선교
- 타문화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 선교적 교회

2. 15기 VTT훈련

1) 기간 : 2017년 6월 26일~7월 8일 / 2주간 합숙훈련

2) 장소 : 베트남 하노이(1주), MVP선교회 벤처홀

3. 청소년 케빈캠프

1) 기간 : 2017년 8월 8일(화) ~ 10일(목) / 2박3일

2) 장소 : 팀비전센터(서울 은평구 불광동) 벚나무관

3) 회비 : 1인당 65,000원 / 7월 15일까지 선등록 시 6만원

4) 주제 : '너와 함께 떠나는 여행(수1:5)'

선교사 동향

- 1월 29일 행복한동행교회에서 데이빗/드보라 선교사님의 파송예배가 있었습니다.
- 3월 16일 신길벗/이루리 가정이 본부 사역과 안식년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습니다.
- 3월 20일 이갈렙/박은혜 선교사 가정의 장남 이명기군이 입대하였습니다. 자대는 경기도 가평 맹호부대입니다.
- 5월 3일 민필립/장로이스 선교사 가정이 득남(민조엘)하였습니다.

2017년 1월 ~ 4월 후원자 명단

[Mk기금]
곽정인 구명옥 김세진 김 솔 김정한 김혜란 박미애 박아름 서연주 서호균 신동규 신현경 유경희 이경애 이동근 이여범 이유리 이종훈 이충식 전해솔 정정주 정현진 조정주 조희선 한은영 김지혜/김지은 이태훈/이태욱 한천희/최은총

[간사기금] 김혜란 백준호 신명규 이귀태 이재만 이충식 최용재 최웅수 한남운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이승규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이새암 [훈련동원] 문순동 신소연

[본부후원]
강길용 강상모 김영이 김현곤 김화경 노병인 문현심 방은미 오샛별 윤여광 이보람 이승규 이유경 이종훈 이주용 이충식 이판호 정성희 정현성 조명순 조영남 지경준 한남운 한정국 홍성원 이응복/이정미 하명수/홍유미 한천희/최은총
고현교회 공종훈(하영통신) 꿈이있는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물댄동산수림교회 산돌중앙교회 성실교회 예수비전교회
조경순(ks투어)

[북아프리카] 김정한 이동욱 [북인도무슬림] 김종근 지명준 진 현 [아라비아반도] 정용환 한정국 황두환

[인도차이나] 이지혜 [중국무슬림] 김철우 오설란 이동욱 [중앙아시아] 김성규 김진철 이승원 이재춘 이충식 이희정 한유경

[초승달권역] 연인흠 이재선 임하경 정소라 [페르시아1] 김유리 박건부 정다은 정현실 [페르시아2] 김혜란

우측 페이지에 선교사 각각의 후원계좌번호와 센터와 산하기관 등의 후원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가 번거로우실 경우, 홈페이지(www.mvp.or.kr)에서 미션플러스(CMS 후원) 신청도 가능하며, 본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02-703-1215).

MVP선교회 후원계좌번호 안내_거래은행:국민은행

MVP선교회 소속 선교사 후원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본부에서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선교사 후원계좌를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현재 재정 후원하시는 선교사 계좌번호와 다를 시 아래의 계좌로 변경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24790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는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아래의 번호로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협, 우리, 외환,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95	이삭 열매	모로코	324790-29-000030	김계원	카자흐스탄
324790-29-000254	누사배	미얀마	324790-29-000126	한수아 임하경	카자흐스탄
324790-29-000168	데이빗 드보라	베트남	324790-29-000209	장승리 유열매	카자흐스탄
324790-29-000241	이길 한마음	베트남	324790-29-000027	김순심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337	이복애	베트남	324790-29-000267	박수보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70	신미래	UAE	324790-29-000551	김이안 정안나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142	하바나바 홍희락	요르단	324790-29-000100	이갈렙 박은혜	타지키스탄
324790-29-000072	허드슨 노뵈뵈	이집트	324790-29-000225	전빌립 김루디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353	보배	이집트	324790-29-000296	박동행 김조이	타지키스탄
324790-29-000478	민슬기 장사라	이집트	324790-29-000519	이한	타지키스탄
324790-29-000580	전세희	이집트	324790-29-000014	탁요셉 김사라	터키
324790-29-000155	김수오 성복희	이스라엘	324790-29-000098	한밀알 글로리아	터키
324790-29-000283	이만민 나기쁨	이란	324790-29-000308	김기용 정은미	터키
324790-29-000548	이계절 이강애	인도	324790-29-000184	신여호수아 윤사랑	터키
324790-29-000069	제이콥리 샤론박	중국 신장	324790-29-000212	김소니아	파키스탄
324790-29-000171	김게바 홍알마	중국 신장	324790-29-000085	채열매	국내
324790-29-000340	염미족 정부흥	중국 신장	324790-29-000238	이바울 고예은	Y회사
324790-29-000407	정해명	중국 신장	324790-29-000197	신길벗 이루리	말레이시아
324790-29-000481	한빛 누리	중국 신장			

국내사역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139	한정국 이경애	KWMA / MCC	324790-29-000113	김인애	리사원 원장
324790-29-000043	장선우 정순달	본부장	324790-29-000410	김홍빈 김영미	캠사원 원장
324790-29-000436	전상일 차윤주	훈련동원 총무			
324790-29-000324	아굴라 브리스길라	벤사원 원장			

국외센터 / NGO / 프로젝트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66	이집트M센터	이집트	324790-29-000382	하베스트코리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379	모라비안센터	터키	324790-29-000564	시리아난민사역	이집트

본부기금 및 산하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012501-04-182812	MVP선교회	본부	762301-04-235022	MVP선교회	청소년캠프
055201-04-130496	MVP선교회	10권역기금	762301-04-193960	MVP선교회	벤사원 기금
055201-04-130470	MVP선교회	MK기금	055201-04-130467	MVP선교회	리사원 기금
762301-04-169624	MVP선교회	건물기금	762301-04-193957	MVP선교회	캠사원 기금
762301-04-226167	MVP선교회	간사기금			

3rd KEVIN CAMP

2017년 8월 8일(화)-10일(목) / 2박 3일

세번째 케빈캠프 "너와 함께 떠나는 여행"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 1:5)

- **장소** : 팀비전센터(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 **회비** : 1인당 6만5천원
- **대상** : 청소년
- **문의** : 02)703-1215 김대범 간사
- **홈페이지** : www.mvp.or.kr
- **주최** : MVP선교회

MVP
MISSION VENTURE PARTNERS